



해외양계 뉴스

아시아

양계업 급부상하는 중국

세계식량기구(FAO)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의 양계산물 생산량이 계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역할의 주요국이 중국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생산량을 보면 '93년 세계 물량이 전년에 비해 3.4% 증가한 4,600만톤인 반면 중국은 12% 성장한 500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90년에 비해 50% 성장한 수치이고 아시아(1,300만톤) 성장율에 비해서는 60%나 차지하는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국별로 보면 일본은 최근 타육류 소비에 밀려 정체내지는 생산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걸프전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여왔던 이라크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란, 파키스탄은 전년에 비해 '93년도에는 10% 증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는 5% 증가, 터키는 2%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EU

계란의 판매기한을 설정

EU는 지난 6월 농상이사회에서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의 방지를 위하여 직접 소비되는 계란의 판매기한을 설정해야 하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판매기한은 산란후 21일로 한다. 또 계란의 상미(賞味)기한이 판매기한후 1주일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식용으로서 사용 가능한 것은 산란후 28일까지로 한다.

② 소비자에 대한 상미기한의 명시를 의무화한다.

③ 가맹국마다 실시하고 있는 보존온도 및 표시에 관한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수 있다.

④ '96년 6월말 이전에 제도의 재검토를 실시한다.

EU의 계란유통제도는 지난 '90년부터 식용란의 등급(품질과 중량) 및 용기의 표시의무(Packer의 주소, 성명, 품질과 중량의 등급, 포장일시) 등을 제정 실시되어 왔다.

일본

'93년 계란생산비 171.8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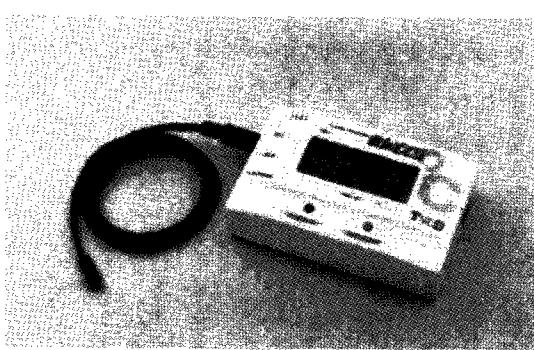
'92년 8월부터 '93년 7월까지 일본의 계란 생산비를 조사한 결과 계란 1kg당 생산비는 171엔 80전으로 전년대비 5.8엔 인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주요인으로는 사료비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배합사료 가격의 인하인데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노동비 감소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익성면에서는 계란 1kg당 30.4엔의 적자를 보였는데 조사기간 동안 계란생산 판매가격은 전년대비 18.0엔이 내린 141.4엔으로 생산비를 밀돌았다.

사양규모별 생산비를 보면 계란 1kg당 생산비는 5천수~1만수 미만은 kg당 193.2엔, 2만수 이상은 163.4엔으로 그 차이는 29.8엔을 보였다.

온도자동측정기 “おんどとり” 개발



다양한 전자기기를 개발 보급하고 있는 일본의 (주)ティアンドディ는 온도를 자동적으로 계측하여 개인 컴퓨터로 표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5월부터 시판하고 있다.

계란의 경우 2점에 센서를 이용 일정한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하여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를 한후 일람표로 출력할 수 있다.

본체는 건전지 4개로 작동되는데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온도 표시는 물론 컴퓨터에 케이블로 간단히 접속하여 사용가능하며, 동시에 4대로 측정하여 일괄 처리된다. 용도는 연구개발기관, 유통, 생산지, 판매점, 농·어업 분야로 다양하며 가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가격은 케이블 포함 대당 24,800엔이다.

· 전화 : 일본 (0263)27-2131

· 팩스 : 일본(0263)26-4281

이스라엘

계란생산 자율생산 체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지난해까지 양계업을 퀴터제로 운영해 왔으나 '94년부터 채란업쪽에서 퀴터제를 풀고 자율생산 체제에 들어갔다.

정부에서는 계란의 최저생산비를 설정하여 과잉이 되면 수매를 하여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

이 정책을 실시한 이후 생산량은 점점 늘어난 반면 최종 소비자 가격은 30~40% 낮춰졌는데 '94년 1월에는 잉여생산 물량이 2,800만개였으며 2월도 거의 비슷하여 과거 15년 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물량증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자율생산체제에 따라 계란유통에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닦고기 시장에서도 퀴터제를 풀어버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계**